

성장하는 중동지역 차(茶) 시장

두바이지사

전 세계적으로 차(茶)를 많이 소비하는 중동지역

- 평소 차를 즐기고 손님 접대문화가 발달한 중동지역에서 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. 특히 UAE는 중동 국가들 가운데 커피와 차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. UAE의 온음료(hot drink) 총 매출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커피이지만, 녹차잎을 원료로 한 차와 그 외 가루차의 판매량도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. 브라질의 수출 및 투자정보기관 <에이펙스브라질(Apex-Brasil)>에 따르면, 2015년 기준 7억 7,450만 달러였던 UAE의 온음료시장은 2019년에는 10억 1,00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¹⁾
- 중동지역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1인당 차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18년도 중동지역의 1인당 평균 차 판매량은 17.2달러로, 2022년에는 20.8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특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도 1인당 차 지출이 각각 61.7달러와 47.8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 총 판매량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매년 4.9%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, 그 중에서도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의 경우 매년 평균 각각 9.1%, 5%, 4%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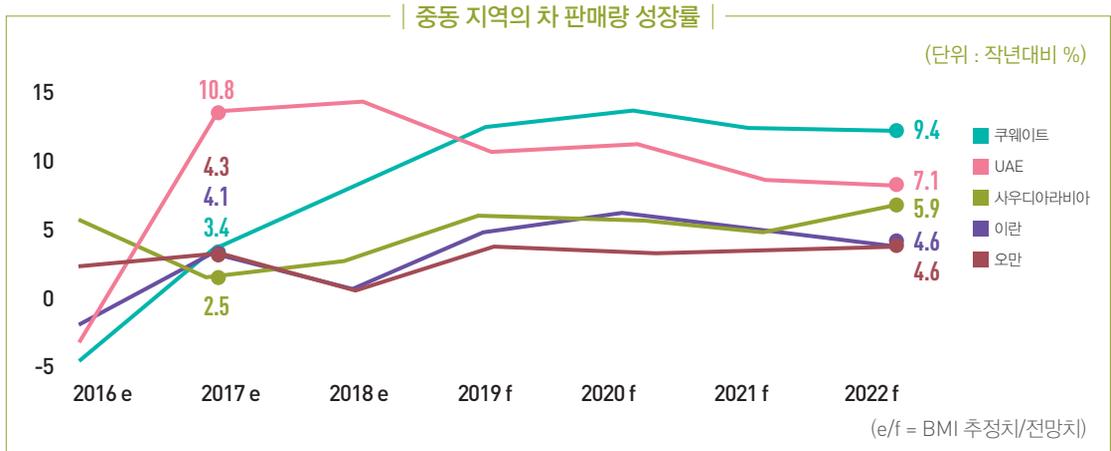
| UAE의 티 카페 프랜차이즈 '필리 티 앤 토크(Filli Tea n Talk)'의 광고 이미지 |



두바이의 작은 카페에서 출발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점을 내고 있는 '필리' 카페의 대표 메뉴는 사프란을 가미한 밀크티 '자프란 티(Zafran Tea)'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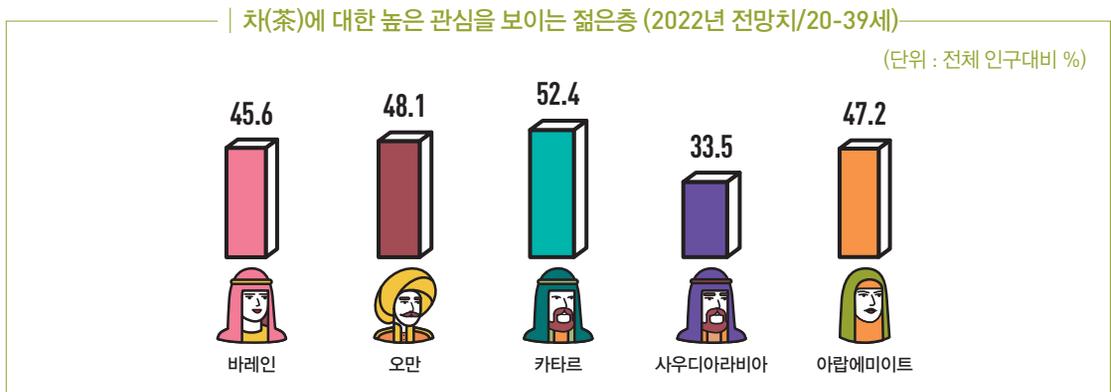
출처 : 필리 티 앤 토크 공식 트위터 계정

1) <Khaleej Times>, Fueling the coffee and tea industry's growth in the Middle East (2017.12.13)



차에 대한 관심이 큰 젊은 소비자층

- 중동지역은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20-39세의 젊은 층으로, 차 소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향후 중동의 차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.



한국 전통 건강차의 가능성 타진 필요

- 평소 차를 즐기는 전통과 더불어 인구 수 증가, 건강식품에 대한 높아지는 선호가 중동지역 차 소비를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젊은 층의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프리미엄 차의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. 따라서 인삼차, 대추차, 유자차, 옥수수수염차 등 한국 전통 건강차를 중동지역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하고, 한국 차 특유의 효능을 앞세워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마케팅한다면 현지시장에 보다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.

참조 : <BMI Research>, Tea giant eyes Middle East market (2018.03.09)